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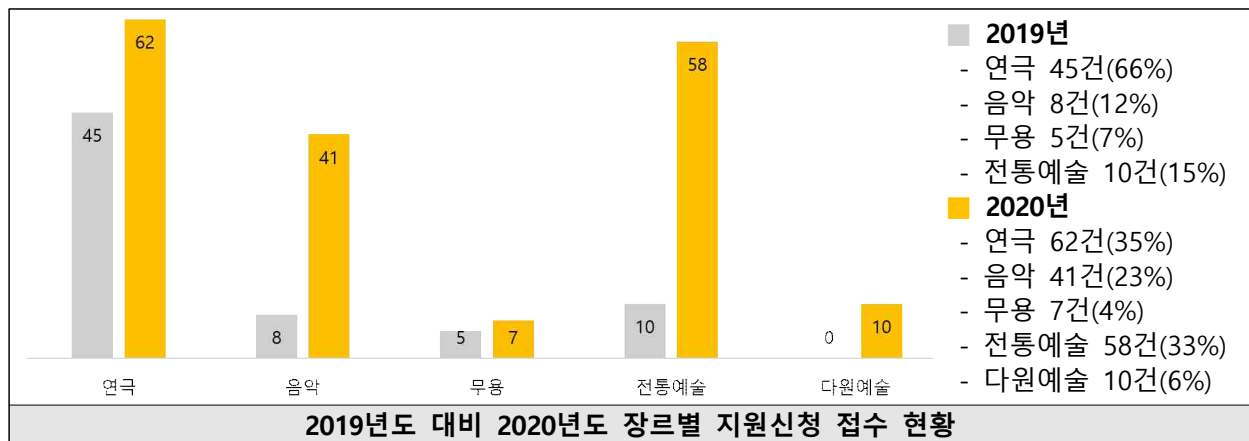
- 사업명 : 2020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 회의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14:00~19:00
- 회의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층 다목적실

1. 사업 추진개요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후원 받아 총 지원예산 10억 5천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별도의 주관처를 선발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해왔으나, 사업 성과 관리의 어려움과 특정 장르의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도 사업 종료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도 사업을 부득이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할 수밖에 없어, 주관처 선정에 대한 시간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위탁 운영 시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에 참여해 주신 원로 예술인 분들을 모시고 두 차례 자문회의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숙기에 이른 원로예술인의 우수한 역량을 기록하고,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록화(아카이브) 작업 또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내용이 다양해졌습니다. 아울러 원로예술인 분들께서 오롯이 작품활동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행정인력 지원 및 사례비 지급에 대한 지원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원로예술인의 IT 및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지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선정 단체의 NCAS, e나라도움, 집행.정산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사업 운영 전 절차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서만큼은 문서 작업과 e나라도움 사용이 원로예술인 선생님들의 창작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정 단체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접수 결과

이번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의 공모는 11. 16(월)부터 11. 30(월) 24시까지 총 178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의 총액은 7,380,576,906원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총 40건, 2018년에는 총 36건, 2019년에는 총 68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직전 3개년도의 신청건수 평균(48건)에 비해 무려 3.7배에 이릅니다. (전년 대비 2.6배 증가)

지역별로도 전체 17개 시·도 최소 2건 이상의 단체가 지원신청하였으며, 또한 전년도에는 특정 장르에 전체 지원신청건수의 66.2%가 몰려 있었던 반면, 이번 공모에는 장르별로 비교적 고른 지원신청이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특색을 지닌 원로예술인과 공연예술 작품이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다원예술 장르에도 적지만 유의미한 지원 신청건수가 접수되어, 앞으로도 본 사업에서 지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연극/뮤지컬 35%, 음악 23%, 무용 4%, 전통예술 33%, 다원예술 6%)

다만 신설된 다원예술 장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인지, 재즈, 팝송, 트로트 등 대중가요의 지원신청이 다수를 차지하였던 점은 차년도 공모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기초공연예술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할 점은 예술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기금의 성격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원심의 및 지원결정 과정

이번 지원심의를 장르 통합 심의로, 각 장르의 전문가 한 분씩을 모시고 총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심의는 ①사무처 행정검토, ②심의위원 전수검토 및 가채점, ③지원심의 종합토론 및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①사무처 행정검토) 먼저 사무처에서는 기존에 안내된 지원제외대상이나 행정결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살폈고, 사무처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내용(기초예술 해당 여부, 신청단체의 실적 등)은 심의위원회에 일임하여, 공연단체와 작품에 대한 평가는 삼가고자 하였습니다. 행정검토 과정에서 타 지역 문화재단의 유사 사업에 선정된 단체 신청 건, 지원신청서 미제출 건, 원로예술인 실연자 비율 미달 건 등 총 3건을 행정결격 처리하였습니다.

(②심의위원 전수검토 및 가채점) 보다 꼼꼼한 심의를 위하여 지원신청서 전체를 살펴보고 평가의견을 남기는 '전수검토제'를 운영하였으며, 각 심의위원은 지원심의회의 전 일주일 간의 검토 기간을 가졌습니다.

회계 년도	관리번호 (단체/개인)	관리명(개인명) (심의위원)	심의위원 분야	심의기회 여부	점수			등급			가중치			총점	출력 순서	적정 금액	종합 의견
					1	2	3	1	2	3	1	2	3				
2020	2020													5	3,000	미정액	합당하고 있다
2020	2020													1	3,000	결론	인생토끼 콘서트
2020	2020													1	3,000	대중음악	라이브 방송!
2020	2020													11	3,000	원로예술	강을 지향하며
2020	2020													9	3,000	국악과	역해도 양갈은
2020	2020													18	3,000	재주 공연	
2020	2020													5	3,000	신원단	가 모여 언택트
2020	2020													17	3,000	원로예술	여섯가 소풍
2020	2020													18	3,000	본 공연	을 시도하여 큰
2020	2020													8	3,000	오현 스	로, 자신의 예
2020	2020													19	3,000	원로예술	의 무대활성화
2020	2020													19	3,000	원로예술	내 나가는 노력
2020	2020													5	3,000	원로예술	을 이어 온 사
2020	2020													5	3,000	단체위	의 구성에 대한
2020	2020													5	3,000	국악과	원지에는 뿌
2020	2020													7	3,000	공연의	인정할 사건의

전수검토제에 따른 가채점 화면(가중치별 점수, 적정 금액 및 종합 의견 전수 작성)

③지원심의 종합토론 및 예산 심의) 지원심의회의 당일에는 심의위원이 전체 지원신청서에 대한 평가 의견을 밝히고, 심의기준(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기초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수행단체의 역량)에 따라 개별 채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르별 전문 심의위원은 해당 장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적격성에 대해 토의하는 등 종합 토론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심의방침에 따라, 동점자 처리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직전년도 미지원단체, 신설 단체 추진 사업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지원결정은 채점 결과 취합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였으며,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일부 지원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단체에서 최대 지원금액(50 백만원)에 맞추어 지원신청액을 과도하게 계상한 경향이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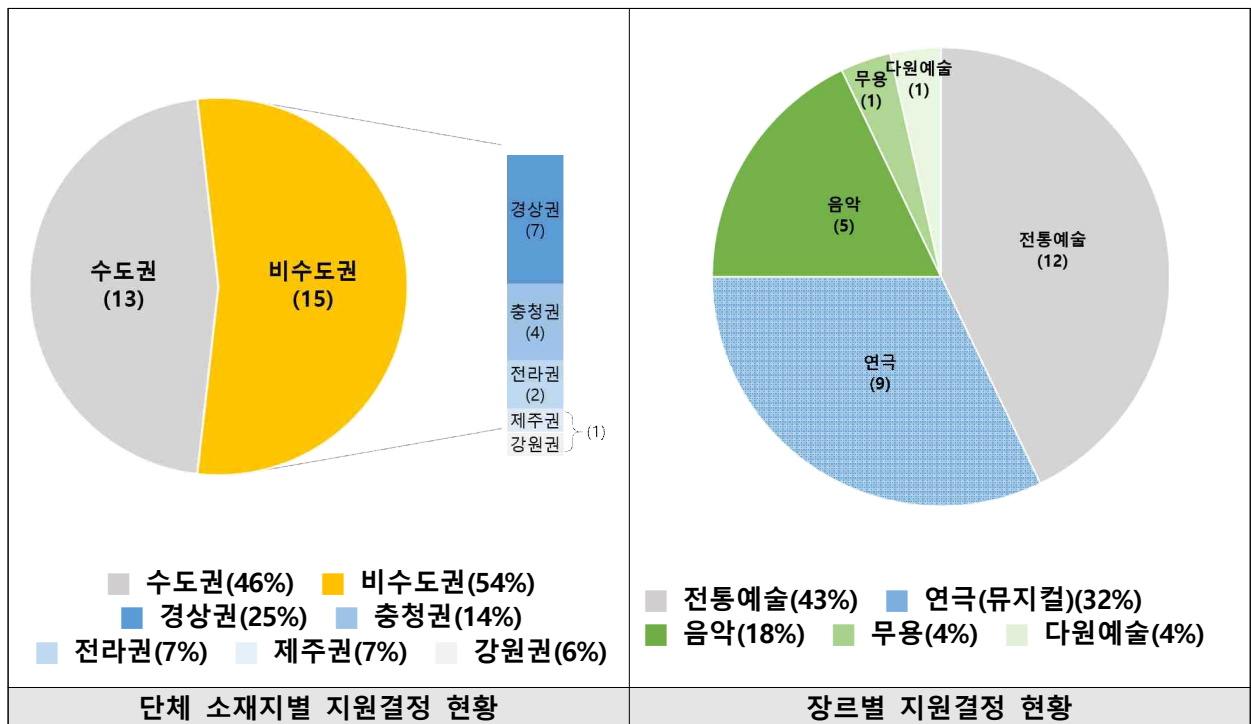


지원심의회의(종합토론)



지원심의회의(예산 심의)

따라서 최종 28개 단체에 대하여 총 1,05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4. 종합의견 및 선정단체 안내사항

2020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의 공모는 사업의 고유 목적성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을 예우하며 그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방식의 사업이 높은 점수를 득하였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급조된 나열식의 공연이나, 원로예술인 참여의 당위성이 적은 공연은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대 지원신청 가능한 금액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단체가 많은 것으로 보여, 신청된 규모에 알맞게 전체 지원결정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술하였듯 재즈, 팝송, 트로트 등 고령의 관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원예술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6)」의 정의에 따라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포함)”이라고 정의하였음을 알립니다. 비록 다원예술 장르에 기대했던 실험적, 탈장르적인 형식의 공연의 지원신청은 적었지만, 기초예술과 융합된 형식의 공연을 선정하여, 향후 본 사업 지원 장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이 지원되어 문화예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원로 예술인 분들이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은, 예년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운영,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1년 상반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단체의 깊은 양해를 바라오며, 사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부침이 예상되나, 우리 예술위원회에서도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업체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e나라도움 및 집행·정산, 회계 업무에 대한 애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업무 지원 업체가 있더라도, 선정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공감하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동안 어려운 점을 즉시 알려주시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선정된 28개 단체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려운 시기에 선정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여하는 원로예술인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며, 그 예술가치가 다음 세대의 예술인과 다양한 관객에게 전해지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늘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